

#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

최은주\*

- I. 머리말
- II. 인맥의 지도, 문학교류
- III. 인맥네트워크의 범위와 특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 1567~1637)는 정치적으로는 남인, 학파적으로는 범퇴계학파에 속한다. 영남 청송 지역 출신으로 명지재(明智齋) 민추(閔樞, 1526~1604)와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를 사사했고, 교류한 주요 인물들도 영남의 퇴계학맥을 계승한 인사들이었다. 조형도가 남긴 다량의 한시들 가운데에는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생산된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계속되는 전란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무인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는 지역의 문인들과 문학으로 쉼 없이 교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교류 속에서 생산된 시의 창작배경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 문학교류를 통해 인맥 지형을 읽어내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탐색해보려 한 것이다.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 전자우편: ejchoi@koreastudy.or.kr

조형도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 중에 인맥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시들은 약 230수 정도였다.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시를 지었고 또 사람이 그림고 생각날 때에도 시를 지었다. 사람들과 얽혀 있는 시들은 그의 인맥 지형의 미시적 실상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충분했다. 교류 인물들의 출신 지역 분포를 볼 때 대구가 12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상주와 청송이 5명 · 의성 4명, 그리고 성주 · 안동 · 영주 · 밀양 · 선산 · 함안 등이 각 2~3명으로 경남 함안에서부터 경북 북부까지 골고루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조형도의 인맥 네트워크의 범위는 대구를 중심으로 함안 및 청송 지역들을 크게 아우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두 지역을 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처남이었던 오여벌을 제외하면 안동 위의 인사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예안에 살았던 김령과 김택룡이 안동, 영주, 봉화 지역 인물들과 집중 교류했던 것과 대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인의 삶을 택했던 청송 출신의 조형도가 어떤 인맥 지형을 구축했는지 알려주며, 더불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퇴계 문인들의 동향과 지역적 교류 및 계보 형성에 대해서도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 주제어

조형도, 청송, 함안, 문학교류, 인맥지도, 퇴계학과

## I. 머리말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 1567~1637)가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전 반은 격변의 시대였다. 대외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이어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선조, 광해군, 인조 3대를 지나며 큰 폭의 정치적 변동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조형도는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격변기를 경험하며 그에 대응하는 삶을 살았다. 특히 그가 26세 때 겪은 임진왜란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그는 학봉 김성일이 초유사가 되고 망우당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진영에 나아가 많은 공을 세우게 된다.<sup>1)</sup> 그리고 이를 계기로 2년 뒤 1594년(선조26)에 조형도는 문과를 버리고 무과를 택해 응시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스스로 말하길 “선비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국사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 어찌 사장(詞章) 중심의 과거공부에만 매달리고 군부(君父)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sup>”라고 하였다.

무과에 합격한 조형도는 무인의 길을 걷지만, 어려서부터 같고 닮은 학문의 깊이와 문장의 재능을 숨길 수는 없었다. 21세 때부터 3년을 연달아 향시에 장원하자, 당시 시관이었던 윤인함(尹仁涵)이 그의 답안을 보고 해박한 학문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이 문집 서문에서 여러 고을을 다스리며 문교(文教)를 앞세웠으니 공의 숭상한 바를 알 수 있다<sup>3)</sup>고 한 것이나, 하음(河陰) 신즙(申楫, 1580~1639)이 그의 묘지명에서 “문학에 명성이 자자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관리가 공을 얻으면 인재를 얻었다고 여겼다”고 말한 데에서<sup>4)</sup> 그의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 
- 1) 趙亨道, 『東溪集』 권1, 「壬辰夏 聞鶴峯金先生(誠一) 招諭本道 忘憂堂郭公(再祐) 倡義舉兵 與季弟(東道) 共赴有詩」
  - 2) 趙亨道, 『東溪集』 권5 附錄, 「行狀(李乘夏)」, “公乃慨然曰土生王國 國步艱危 豈可拘詞章之業 而不急君父之難乎”
  - 3) 趙亨道, 『東溪集』, 「東溪文集序(柳致明)」, “獨棲遲郡邑 卒以文教爲先 其所尙可知也”
  - 4) 趙亨道, 『東溪集』 권5 附錄, 「墓誌銘(申楫)」, “是歲取鄉解 連舉戊子辛卯貢額 自是文名藉

문학적 성향과 재능은 그가 남긴 다량의 한시들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조형도는 정치적으로는 남인, 학파적으로는 범퇴계학파에 속한다. 영남 청송 지역 출신으로 명지재(明智齋) 민추(閔樞, 1526~1604)와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를 사사했고, 교류한 주요 인물들도 영남의 퇴계학맥을 계승한 인사들이었다. 조형도가 남긴 다량의 한시들 가운데에는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생산된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계속되는 전란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무인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는 지역의 문인들과 문학으로 쉽없이 교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고 그가 어떤 배경에서 시를 주고받았으며 그 대상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어 문학교류에 나타난 조형도의 인맥네트워크와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당시 퇴계학과 중심의 남인들은 정치적 영향 및 사승(師承) 관계에 따른 내부적 분화를 한참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의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외형적 결속을 놓지 않던 시기였다. 무인의 삶을 택했던 청송 출신의 조형도가 어떤 인맥 지형을 구축했는지 살펴봄으로써,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퇴계 문인들의 동향과 지역적 교류 및 계보형성에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인맥의 지도, 문학교류

17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영남 지역의 인사들은 관직 진출이 용이했고, 크고 작은 전쟁이 닥칠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는 등 정치적·사회적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학문 탐구와 몰두에는 일정한 계기와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의 학문이 성숙해지는 데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퇴계를 기점으로 성리학 탐구 위주의 영남 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승관계에 따른 계보가 형성 또 확장되고

---

甚 知選得公則以爲得人焉”

있었지만 그 안에 위치하는 모든 문인들의 문집에서 기대만큼 성리학 저술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영남 유학의 학풍은 한당 풍의 시부사장(詩賦詞章)이거나 『소학』과 『주자가례』의 철저한 실천을 요구하는 정도였다.<sup>5)</sup> 또한 전란과 세월 속에서 그 저술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그래서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 문인들의 문집에는 성리학 관련 저술보다 시 중심의 문장학에 경도된 특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계의 고제(高弟)인 정구를 사사하고 퇴계학파의 범주 내에서 교류하고 활동했던 조형도의 삶과 저술 경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한시는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고유영역의 벽을 깨고, 선비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모습으로 파고들었다. 여기에는 한시가 화차운(和次韻)과 증답(贈答)을 통해 대표적 사교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점이 근원적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한시가 감정 분출의 수단이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직면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내면적 정서를 시에 담아냄으로써 표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형도의 문집에 수록된 많은 시들은 바로 한시의 이러한 경향성을 대변한다.

공은 비록 적과 대치하여 교전하는 때 일지라도 학문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감영에 있을 때에 교류한 오봉 신지제, 동명 김세렴, 검간 조정, 경암 오여벌 공은 모두 한 도(道) 내의 명현으로 인접한 고을에 수령으로 있던 이들이었고, 낙재 서사원, 모당 손처눌, 오한 손기양 공은 또한 남쪽 지방에서 한 세대에 이름난 인사였다. 공이 늘 한가한 날이며 서로 불러 서쪽으로는 팔공산에서 노닐고 동쪽으로는 운문산에 올라 시사를 의논하고 경서를 강론하며 사이사이 시와 술로 함께 즐겼다. 집에 돌아와 거처할 때에는 아우 방호공(方壺公)과 나란히 앉아 날마다 학문을 쌓아 즐거움을 얻으며 근심을 잊어버렸다. 삼경과 사서를 손수 써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백가(百家)의 여러 책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깊이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봄과 가을에는

5) 김종석, 「경상좌도에 있어서 퇴계학의 역사적 전개」 참조, 『국학연구』 제7집, 한국국학진흥원, 2005.

향중(鄉中)의 덕망 높은 어른들과 향약과 동규를 강론하며, 활쏘기로 덕을 쌓기도 하고 시에 흥을 부치기도 하면서 효효연(囂囂然)하게 여생을 마치려는 것 같았다. 공이 사는 곳에 대둔(大遯)·보현(普賢)·방장(方丈)과 같은 명승지가 있어 학봉(鶴峯) 선생과 여헌(旅軒) 선생이 노닐 때에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이 수행하면서 가르침을 받들어 나아가 배울 스승이 있다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용담 박이장, 성극 김홍미, 동암 이영도 공 같은 분들은 앞뒤로 청송부의 수령이 되었고, 대암 박성, 인재 최현, 경정 이민성 공도 끊임없이 오고 가며 아름다운 자연의 명승지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 언제나 공이 함께 하며 빠진 적이 없었다. 창석 이준 공이 방호(方壺)에서 공의 형제들을 방문할 때 인하여 하음 신즙, 풍애 권익 공과 더불어 자하동에서 노닐고 각각 그 별호를 써놓았으니, 창석은 상령일호(商嶺一皓)라 하였고 공은 청계도사라 하였다. 이로 인해 골짜기의 이름을 오선(五仙)이라 붙였다.<sup>6)</sup>

위의 예문은 이병하(李秉夏)가 1845년에 쓴 조형도의 행장 중 일부이다. 대략이기는 하지만 그가 교류한 인물들이 주로 어떤 인사들이었는지, 또 그 안에서 함께 시를 짓거나 주고받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그가 남긴 시들에서 실증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의 문집에 남아있는 시는 약 442제(題)인데 그 중 제목에 구체적 인명을 거론해서 쓴 것은 230여제(題) 정도로 절반을 차지한다. 누군가와 명승을 탐방해서 그 경치를 즐기며 짓기도 하고, 누군가의 방문이나 또는

6) 趙亨道, 『東溪集』 권5 附錄, 「行狀(李秉夏)」, “公雖在對壘交鋒之時 而此學未嘗忘也 故其在營也 **梧峯申公之節**·東溟金公世濂·黔澗趙公靖·敬菴吳公汝機 皆以一道名賢 接壤佩符 樂齋徐公思遠·慕堂孫公處訥·磬漢孫公起陽 又下邑之一代聞人也 公每以暇日相速 西遊公山 東駕雲門 論時事講經義 間以詩酒相娛 及其家居也 與弟方壺公聯床征邁 日有藝藝 有樂而忘憂者 手書三經四子 以便觀覽 凡於百家諸書 靡不淹貫羅剔 又於春秋與鄉隣耆德 講鄉約洞規 或觀德於射 或寓興於詩 器器然若將以是而終身 所居有大遯·普賢·方丈之勝 鶴翁旅老之遊 歲無虛歲 而公輒操杖屨承警誨 樂其有就正之方 如龍潭朴公而章·省克金公弘微·東巖李公詠道 先後宰本府 大菴朴公惺, 訖齋崔公覲, 敬亭李公民成 夤緣往來。相與唱酬於烟霞水石之間 而座未嘗無公也 蒼石李公峻訪公伯仲於方壺 仍與河陰申公構·楓厓權公翊遊紫霞洞 各署其號 蒼石曰商嶺一皓 公曰青溪道士洞之得名五仙以此”

자신을 초대하는 것에 감사해하며 짓기도 했으며, 어떤 이의 시에 차운해서 보내기도 했다. 송별할 때 또는 추억할 거리가 생겼거나 막연히 생각이 나서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형도는 교류 인물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정감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시들은 그의 삶 속에서 구축된 인맥 네트워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장인 죽유 오선생[吳湏]과 민상사[閔根孝]를 모시고 방대(方臺)에서 노닐다<sup>7)</sup>
- ② 외삼촌 권침추[權繼昌]과 민순원[閔根孝]을 모시고 방대(方臺)에서 노닐며 지은 연구시<sup>8)</sup>
- ③ 창석 이숙평[李埭]이 입암에서 내방하여 민순원[閔根孝], 신여섭[申楫] 그리고 사제 경행과 함께 방대(方臺)에서 노닐다.<sup>9)</sup>
- ④ 오선동(五仙洞)에서 노닐며 돌에 쓰고 함께 짓다 - 골짜기에 뛰어나 자연경치가 있어 이숙평[李埭], 신여섭[申楫], 풍에 권경보[權翊], 사제 경행[趙遵道]과 더불어 함께 놀며 시를 짓고 각자 선호(仙號)를 골랐다. 숙평은 상령일호(商嶺一皓), 여섭은 청학도인(靑鶴道人), 경보는 청부우인(靑鳥羽人), 경행은 송악서하(松岳棲霞)라고 하고 나는 스스로 청계도사(靑溪道士)라 하였다. 오선동은 화산(花山) 경계에 있다.<sup>10)</sup>
- ⑤ 허후[許恒], 의흥현감 조한빈[曹漢賓], 신녕현감 성력[成櫟], 전 삭녕군수 도경유[都慶兪]와 계정(溪亭)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sup>11)</sup>

조형도의 삶에서 방대(方臺)는 인맥 교류의 중요한 거점이다. 방대는 현재

- 
- 7) 趙亨道, 『東溪集』 권1, 「陪外舅竹牖吳先生(湏) 閔上舍(根孝) 遊方臺」
  - 8) 趙亨道, 『東溪集』 권1, 「陪內舅權僉樞繼昌·閔順源 遊方臺聯句」
  - 9) 趙亨道, 『東溪集』 권1, 「蒼石李叔平埭自立巖來訪 因與閔順源·申汝涉及舍弟景行遊方臺」
  - 10) 趙亨道, 『東溪集』 권1, 「遊五仙洞 題石共賦 洞有泉石之勝 與李叔平·申汝涉·楓崖權景輔·舍弟景行 同遊賦詩 各占仙號 叔平曰商嶺一皓 汝涉曰靑鶴道人 景輔曰靑鳥羽人 景行曰松岳棲霞 余自號靑溪道士 洞在花山界」
  - 11) 趙亨道, 『東溪集』 권2, 「與許侯(恒) 義興倅曹(漢賓) 新寧倅成(櫟) 前朔寧倅都(慶兪) 共話溪亭」

방호정(方壺亭)이 있는 곳으로, 신즙(申楫)의 기록에 의하면 방호의 속칭이 방대라고 한다. 빼어난 경관 위에 원래 박한원이 지은 정자가 있었는데 임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불타버리고 오랫동안 주인 없던 이 곳을 조형도의 아우인 조준도(趙遵道, 1576~1665)가 1617년에 사들여 다시 정자를 지어 풍수당(風樹堂)이라 불렀다고 한다.<sup>12)</sup> ①~③에서 보듯이 아우가 정자를 짓기 전에도 지은 후에도 조형도는 이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 중에는 장인 오운(1540~1617)도 있었고, 스승 민추의 아들 구벽재(扣壁齋) 민근효(1550~1630)도 있었다. 특히, 조형도를 비롯한 창석(蒼石) 이준(1560~1635)·풍애(風峩) 권익(1572~1621)·하음(河陰) 신즙(1580~1639)·방호(方壺) 조준도 이 다섯 사람은 자주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고 시정(詩情)을 나누었는데, 주 근거지가 바로 이 곳 방대였다. ④는 같이 오선동에서 함께 노닐며 시를 짓고 각각 신선의 호칭을 붙이게 된 것도 방대의 모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1615년(광해군7)에 이준이 방대를 방문하자 조형도와 나머지 세 사람이 합류해 며칠을 머무르다 함께 화산(花山)으로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깊은 골짜기를 만나 오선동이라 이름붙이고 그 곳에서 “내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노래를 화답하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또 마시다가 읊다가 혹은 암벽에 쓰고 혹은 돌에 쓰면서”<sup>13)</sup> 몇 수의 시를 남겼던 것이다. 조형도의 시에서 방대는 가까운 이들과 함께 모여 노닐던 곳으로 그려져 있다. 그는 혼자 방대를 찾거나 생각하면서 시를 지을 때에도 함께 했던 이들과의 추억과 약속을 꼭 드러내었다.

12) 申楫, 『河陰集』 권2, 「題方壺風樹堂 二首 并序」, “方壺俗名方臺 石壁千丈 清流瀉出其下 青山萬疊重鎖 登臺則眼界爽豁 蓋勝地也 臺有四時佳景 而秋山尤奇絕 吾鄉前輩漁釣遊衍必於此 以其地幽而勢阻 故稱之以方壺 謂壺中別乾坤也 中古有朴漢元者亭於斯 以時飲射張樂 鄉父老亦不悵往臨 嬉遊以終年 吾輩卽角 猶及見之 漢元既歿 又值倭亂 勝事遂不復 丁酉九月 臺爲湖南避亂人所焚 廢爲墟 因爲權防禦應錄所占 且將二十年 鞠爲茂草 吾友趙君景行憫江山久無主 費重貨賃得來 酒依舊制而新之 ...”; 『東溪集』에 수록된 「風樹堂記」에도 이와 관련된 내력이 소개되어 있다.

13) 趙亨道, 『東溪集』 권4, 「五仙洞記」, “沿溪上下 行歌答 爰坐爰臥 且酌且詠 或題于崖 或書于石 總若干篇”

⑤는 인근 지방수령들과 관광하다가 계정(溪亭)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일을 읊은 것이다. 계정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오래 전부터 함께 경치를 즐기며 시 수창을 기약했었는데, 이 날에서야 서로 만났다고 그 즐거움을 시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조형도의 문집에는 부친 조지(趙址)가 지은 망운정(望雲亭), 주왕산 등 청송 주변의 명승지와 수령을 지냈던 지방의 명승지를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 경치를 즐기며 노래한 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 인물을 언급한 시 가운데 누군가의 시에 차운해서 지어 보낸 시는 약 30여 편 정도 된다. 그 중에 8수 가량은 오선동에서 서로의 시에 차운하며 지은 것들이고, 나머지는 대략 아래와 같다.

- ① 모당 손기도[孫處訥]의 시에 차운하다(「次慕堂孫幾道(處訥)韻」) 등 3수
- ② 하음 신여섭[申楫]의 희우시에 차운하다(「次河陰申汝涉(楫)喜雨韻」) 등 2수
- ③ 이숙평[李浚]의 시에 차운하여 신여섭[申楫]에게 보내다(「次李叔平韻寄申汝涉」) 등 3수
- ④ 손희노[孫處約]의 오매정(五梅亭) 시에 차운하다(「次孫希魯五梅亭韻」) 등 2수
- ⑤ **신순부[申之梯]의 임별(臨別)시에 차운하다**(「次申順夫臨別韻」) 등 2수
- ⑥ 구성부사(龜城府使) 조찬한[趙纘韓]의 시에 차운하다(「次龜城倅趙玄洲(纘韓)韻」)

모당(慕堂) 손처눌(1553~1634)과 그 동생 손처약(1556~?), 함께 5선이라 칭하며 교류했던 이준과 신즙, 그리고 오봉(梧峰) 신지제(1562~1624)의 시를 차운한 작품이 2~3수씩 정도 되고, 구성부사를 지낸 조찬한(1572~1631)과 처남 오여벌(吳汝穰, 1579~1639)을 비롯하여 신지제의 동생인 신태(申柁), 정이길(鄭以吉), 양극선(梁克選), 채선길(蔡先吉) 등의 시를 차운한 것이 1수씩 실려 있다. 조형도는 ④의 시에서 “영외(嶺外)에선 인연 없어 역사만 만났건만, 못 가에선 연분 많아 평생을 사귀어 왔네”<sup>14)</sup>라고 하며, 바쁜 공무로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주고받다가 오매정에서 함께 보낸 시간을 표현하

였다. 상대방의 시에 차운해 보냄으로써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서로간의 교분을 드러내며 다시금 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형도는 누군가를 송별할 때 서운한 마음을 시로 지어 보내기도 했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감사해하거나 반기는 마음을 시에 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방문했을 때나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그 속에서 느끼는 심정을 시로써 표현하였다. 사람이 오고 가고, 자신이 찾아가고 만날 때마다 시가 탄생한 셈이다. 이러한 유형의 시들은 약 44수 정도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오경허[吳汝機]가 구성으로 돌아감을 송별하다(「別吳景虛(汝機) 還龜城」) / 창원에 이르자 수령 오경허[吳汝機]가 영주로 돌아가다(「到昌原 主倅吳景虛將還榮川」) / 오사군(使君)[吳汝機]의 문병에 감사하여 읊다(「吳使君問病感吟」) 등 5수

오여별은 오운의 아들로 조형도의 처남이었다. 조형도와는 서로 의지하며 꽤 막역하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와 주고받은 시에서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주 만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이별에 대한 서운함도 절절하다. 오여별은 영주에 거주했고 또 창원부사 · 청송부사 · 대구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기에, 지방관직에 출입하면서 조형도와 만나고 헤어질 일이 종종 있었다. 위의 세 번째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지방수령에 있으면서 병든 조형도를 문병한 일이 있었다. 조형도가 이 일을 시로 쓴 것인데 서로 마주 대하니 오랫동안 앓던 병도 완전히 나을 것 같이 기쁘다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침에 다시 영외(嶺外)로 떠나는 행색만 한편의 시에 남았다고 하였다.<sup>15)</sup>

14) 趙亨道, 『東溪集』 권3, 「次孫希魯五梅亭韻」, “五梅曾與托身名 四海何須作弟兄 嶺外未緣逢驛使 池邊多分契平生 精交照月枝間雪 香惹研朱案上經 清德不孤籟自在 一亭同保百年馨”

15) 趙亨道, 『東溪集』 권3, 「吳使君問病感吟」, “畏日園林赫 薰風殿閣深 門驚嘶五馬 床喜

- ① 소촌승(召村丞) 김이정[金允安]이 와서 위문함에 사례하며(「謝召村丞金而靜來問」) 등 3수
- ② 무안현감 신여섭[申楫]이 찾아와서 시로써 사례하다(「申務安汝涉來訪以詩謝之」) 등 4수

동리(東籬) 김윤안(1562~1620)은 조형도가 1609년(광해군1)에 김명윤(金明胤)의 참소와 강침(姜籤)의 무고로 진주옥에 갇혔을 때 날마다 옥중으로 찾아가 위문하여 마음을 알아주는 교우가 되었다고 한다.<sup>16)</sup> ①의 시는 그 때 소촌승(召村丞)을 지내던 김윤안이 자신을 찾아와 위문하기에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 조형도는 “아득한 세상길 그대는 말을 하지 말라. 오직 소촌 그대만이 가난한 친구를 사랑하는구나!”<sup>17)</sup>라고 하였다. 그는 김윤안이 방문했을 때에도 찾아왔다가 떠나갈 때에도 슬프고도 고마운 마음을 시로써 남겨두었다. ②의 시는 제목 그대로 신즙이 무안현감에 재직할 때 멀리서 자신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시로써 전한 것이다. 신즙은 1630년(인조8)부터 약 5년간 무안현감을 지냈다. 첫 구절에서 아직까지 관직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신즙의 상황을 양친이 모두 안 계신 자신의 처지에 대비해 부러워하였다. 그리고는 신즙의 늙은 모습에 놀라며 10년 만에 만나 술잔을 나누는 것에 감격해하였다. 신즙이 무안으로 돌아갈 때 써서 준 송별시가 1수 더 있고,<sup>18)</sup> 그가 자신을 찾아왔다가 허탕치고 간 것을 탄식한 시도 1수 남아 있다.<sup>19)</sup>

對雙衿 穩遣閒愁疊 能痊宿病侵 今朝南嶺外 行色入長吟”

- 16) 趙亨道, 『東溪集』 권5 附錄, 「行狀(李秉夏)」, “時巡使李廷臣·兵使林得義·僉使尹先正 皆以晉無習陣之舉 釜無築城之役覆啓 公得有 姜罷出 公在晉獄時 東籬金公允安日來問獄 相與爲知心之交”
- 17) 趙亨道, 『東溪集』 권1, 「謝召村丞金而靜來問」, “曾知出脚眞差計 不意圓扉又抱冤 鄒獄何時書可辨 齊堂今日電應驪 下石莫非人向井 無金渾是客過門 悠悠世路君休說 獨愛貧交有召村”
- 18) 趙亨道, 『東溪集』 권2, 「贈別申汝涉還務安」
- 19) 趙亨道, 『東溪集』 권2, 「歎申汝涉來訪空廻」

- ① 자암에서 이이장[李民奐]을 방문하다(「紫巖訪李而壯」)
- ② 정양직[鄭浩然]의 은거지를 방문하다(「訪鄭養直幽居」)
- ③ 월성에서 이영[李瑩]을 방문하다(「月城訪李(瑩)」)
- ④ 기계에서 이응남[李應男]을 방문하다(「訪杞溪李高靈(應男)」)
- ⑤ 임청각에서 참의 이기성[李遲]를 방문하다(臨淸閣 訪李參議器成(遲))
- ⑥ 언양에서 권선초를 방문하고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하다(「彥陽訪權善初 次壁上韻」)
- ⑦ 거동에서 상사 심자고[沈穩]를 방문하다(「巨洞訪沈上舍子高(穩)」)

위의 시들은 조형도 자신이 다른 지역의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쓴 것으로, 그 중 일부를 제목만 나열해 보았다. 방문한 인물들 가운데 이민환(1573~1649)과 정호연 2명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그렇게 잦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행적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아마도 관직 생활을 하던 가운데 만난 인물들로 만난 당시 또는 후일에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날 때 찾아가 만나고 그 감회를 시로 남겼던 것 같다. 언양에서 권선초를 방문했을 때 지은 시마지막 구절에서 “만나는 이 마당 타향 말 하지 마오, 타향 말 듣게 되면 객의 시름 더해지니”<sup>20)</sup>라고 한 것에서 이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울타리 아랫길에 말 세워 놓고,	卸鞍籬下逕
문 앞 마당에 자리를 마련했네	開席戶前場
가문의 겪은 환난 괴롭게 말하니	苦說經家患
가득한 흰 수염 놀랍고 가련하다	驚憐滿鬢霜 <sup>21)</sup>

위의 예문은 ④의 시 가운데 처음 네 구절이다. 기계(杞溪)에서 이응남을 방문했을 당시 쓴 것으로, 기계는 포항의 옛 지명이다. 그의 집 앞을 지나던 길에 갑자기 들렀는지 말을 멈추고 문앞 마당에 즉석으로 술자리를 마련하

20) 趙亨道, 『東溪集』 권3, 「彥陽訪權善初 次壁上韻」, “男子存心幾日休 江湖之樂廟堂憂 卽今新歲天涯去 依舊故人城下留 政好一罇青滿眼 那堪萬事白添頭 逢場且莫他鄉說 說到徒增客思悠”

21) 趙亨道, 『東溪集』 권2, 「訪杞溪李高靈(應男)」

였다. 만나지 못했던 사이 그가 겪은 가문의 고초에 흰 수염 가득할 정도로 늙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며, 조형도는 놀라워하고 또 가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뜻이 통한 교분이 늦은 것은 아니오나,                    投分交非晚  
서로가 추종함에 길이 멀어 어이할까?                    相從路奈除<sup>22)</sup>

이 시는 ⑦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이다. 거동(巨洞)의 심은을 방문했을 때 쓴 것인데, 사귀는 교분이 지금부터라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따르며 친하게 지내려니 길이 멀어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예고했지만, 조형도가 심은과 관련하여 지은 것은 이 시 1수만 남아있을 뿐이다.

친구나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는 것에 대해 사례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도 남아 있다.

- ① 박대이[朴櫟]가 술을 가지고 온 것에 사례하다(〔謝朴大而(櫟)載酒來訪])
- ② 이상사 양초[李明愬]가 술을 가지고 위로함에 감사해하다(〔感李上舍養初(明愬)攜酒來慰])
- ③ 신길보[申慶男]의 내방에 사례하다(〔謝申吉甫(慶男)來訪])
- ④ 밤에 찾아온 엄후[嚴愷]에게 감사해하다(〔感嚴侯夜訪])
- ⑤ 채길중[蔡先吉]이 술을 가지고 내방한 것에 사례하다(〔謝蔡吉仲佩酒來訪])

술을 가지고 찾아와 위로하는 이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비교적 왕래가 잦은 인물들에 속한다. 위의 예문에 언급된 이들은 관련된 시가 대개 3~4수 이상 수록되어 있다. ④의 시에 등장하는 엄후는 엄황(1580~1653)을 가리키는데, 엄황은 1603년(선조 36)에 무과에 급제한 후 1615년에 함안군수를 지냈던 인물이다. 조형도는 청송 안덕리에서 태어났으나 10세 때

22) 趙亨道, 『東溪集』 권3, 「巨洞訪沈上舍子高(穩)」

함안 검암리의 백부에게 입양되었고, 15세 때에는 당시 함안군수로 와 있던 한강(寒岡) 정구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이후 친부모가 계신 청송과 양부모가 계신 함안을 오가며 지냈다. ③의 시에 신경남은 가깝게 지냈던 신증의 부친이고, ②의 시에 이명호는 함안 출신으로 정구의 문인이다.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함께 수학했었던 듯하다.

성 나온 관원 행차 황혼이 가까운데	出城阜蓋近黃昏
시냇가 노는 사람 문을 닫지 못하였네.	溪上遊人不閉門
한동이 술을 들고 찾아온 뜻 너무나 고마우니	多荷一罇來訪意
마주하고 서로 토론하다 말을 잊게 되더라.	對床相討爲忘言 <sup>23)</sup>

위의 시는 엄황이 함안군수로 와 있을 때 밤에 조형도를 찾아왔기에, 이에 고마워하며 지은 것이다. 엄황은 행차를 나왔다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밤 늦게 조형도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 외에도 엄황에게 보낸 시 2편이 더 있다.

송별시는 통신사로 일본에 가는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을 전송한 시를 비롯해 약 14수 정도가 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것에 감사해하며 지은 시가 2수 있는데, 그 중 1수는 곽재명(郭再鳴, 1552~?)과 서사원(徐思遠, 1550~1615)의 초대를 받은 것이다.

유월의 그늘은 여름에 연하였고	六月陰連夏
팔공산 상쾌함은 가을철이 가깝구나.	八公爽近秋
누각에 누웠으니 출입이 어려운데	臥樓難杖出
문 두드리며 편지 오니 행운이라.	敲戶幸書投
취하고 배부르니 술과 안주 겸하였고	醉飽瓜兼露
이기고 지는 것은 관에 가득 바둑일세.	輸贏玉滿楸
평생 속세에 뜻을 두고 살았으나	平生親俗意
오늘은 유유자적하게 보내리라.	今日任優遊 <sup>24)</sup>

23) 趙亨道, 『東溪集』 권1, 「感嚴侯夜訪」

곽재명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이름난 곽재겸(郭再謙)의 동생이고, 곽재우(郭再祐)와는 사촌지간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 출신으로 형 곽재겸, 서사원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상당한 공적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사원의 문집에 곽재명의 인명이 등장한다. 이 두 사람이 조형도를 초대하였고, 그 초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은 것이 바로 위의 시이다. 오라고 부르는 편지에 함께하는 날 만큼은 유유자적하게 놀아보리라고 마음먹는 모습에서 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저 상대방이 궁금하고 그리워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자 시를 써 보내기도 했다.

망우당[郭再祐]에게 주다(「贈忘憂堂」) / 회포를 써서 순부[申之悌]에게 보내다(「述懷贈順夫」) / 감회를 읊어 오경허[吳汝機]에게 보여주다(「感吟示吳景虛」) / 통제사 이운룡[李雲龍]에게 보내다(「贈李統相(雲龍)」) / 가을밤에 감회를 읊어 달성목의 김이정[金允安]에게 보내다(「秋夜感懷 呈達城牧金而靜」) / 포산의 서관에서 허사군[許佺]에게 주다(「苞山西館 贈許使君(佺)」) / 중제 치원[趙任道]에게 주다(「贈從弟致遠(任道)」) / 손희로[孫處約]에게 부치다(「寄孫希魯」) 등

위와 같은 시들은 특별한 계기 없이 상대방의 이름과 주다[贈], 올리다[呈], 부치다[寄], 보여주다[示] 등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략 17수 정도가 있다.

「정월 보름날 밤에 이동악[李安訥]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처럼 상대방이 그리울 때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시를 쓰기도 했다. 조형도는 시에서 “지난 해 오늘 옛 나라 동쪽에서, 부윤(府尹)과 술 마시니 달빛 가운데라. 오늘은 골짜기에서 상원절 다시 만났는데, 고상한 놀음 되돌아보니 꿈결 같구나.”<sup>24)</sup>라고 하였다. 1년 전 정월 보름날 밤에 경주부윤 이안눌과 함께 경주

24) 趙亨道, 『東溪集』 권3, 「謝郭(再鳴)·徐(思遠)見邀」

에서 술 마시며 함께 놀았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올해의 정월 보름날은 골짜기에서 쓸쓸하게 맞이하니 1년 전 그 날이 꿈결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였다. 「밤에 꿈에서 손경징[孫起暘]을 보고 느낌이 있어 읊다」<sup>26)</sup>라는 제목처럼 누군가의 꿈을 꾸고 그 느낌을 시에 담기도 하였다.

문학 교류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써서 보내는 만시(輓詩)도 빼놓을 수는 없다. 과도한 청탁과 형식적·의식적 작문으로 만시의 폐해를 지적한 이들도 없지 않았으나,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었다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시에 진정성을 가득 담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형도의 문집에는 그가 써서 보낸 만시가 약 16수 정도 수록되어 있다. 그 대상 인물들은 오운, 정구, 서사원, 민후진, 신지제, 신타, 광재겸, 손처눌, 흥탁, 이간, 권익, 이확 등이다. 그리고 조형도에게 보낸 만시들도 57수 가량 부록(附錄)에 수록되어 있다. 전식(全湜), 이민환(李民賓), 신집(申楫), 박공구(朴犴衢), 손처약(孫處約), 성력(成櫟) 등 시를 통해 평소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김영조(金榮祖, 1577~1648)나 박진영(朴震英, 1569~1641)처럼 문학적 교류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시를 통해 서로 간에 교분이 두터웠음을 짐작케 하는 인물들도 있다. 김영조는 조형도를 위해 지은 만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대대로 이어오며 사귄 세의 깊었는데	連世存交誼
오늘날 이 이별에 마음이 슬프구나.	傷心此別離
...(중략)...	
슬프고 기뻐던 일 한바탕 꿈이 되었으니	悲歡歸一夢
영원히 나 홀로 옷깃을 적신다.	終古獨濡衣 <sup>27)</sup>

또, 박진영은 “어린 시절 친한 정이 백발까지 함께 했는데, 오늘날 이승

25) 趙亨道, 『東溪集』 권2, 「上元夜 憶李東岳(安訥)」, “去歲茲辰古國東 使君罇酒月明中 如今峽裏重逢節 回首高遊入夢空”

26) 趙亨道, 『東溪集』 권3, 「夜夢孫景徵感吟」

27) 趙亨道, 『東溪集』 권5 附錄, 「輓詞(金榮祖)」

저승 갈릴 줄 누가 알았으랴”<sup>28)</sup>라고 하였으니,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내며 관계를 돈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조형도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 중에 인맥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시들은 약 230수 정도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시들이 생산된 배경들이 무엇인지 더불어 어떤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 문학교류를 통해 인맥 지형을 읽어내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탐색해보려 하였다. 조형도의 경우 이것은 매우 유효한 작업이었다.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시를 지었고 또 사람이 그림과 생각날 때에도 시를 지었다. 사람들과 얽혀 있는 시들은 그의 인맥 지형의 미시적 실상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 Ⅲ. 인맥 네트워크의 범위와 특징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대상 인물의 정보와 교류의 빈도를 정리하여 조형도의 인맥 네트워크의 범위와 그 특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조형도는 17세 때 청송에서 조부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명지재(明智齋) 민추(閔樞, 1526~1604)에게 나아가 수학(受學)하였고, 21세가 되던 해에는 함안으로 귀성(歸省)하여 당시 함안 군수였던 한강(寒岡) 정구(鄭誦, 1543~1620)에게 수학하였다. 민추는 학봉 김성일과 내외종간으로 일찍부터 학봉의 부친인 청계 김진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여헌 장현광과도 교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영남학파의 맥을 이어받은 정구는 퇴계와 남명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는데, 특히 영남의 대구와 성주 문화권에서는 이름난 학자 대부분이 그의 제자로 이름이 올라 있

28) 趙亨道, 『東溪集』 권5 附錄, 「輓詞(朴震英)」, “童穉情親共白頭 誰知今日隔明幽 高年高爵榮無譬 賢子賢孫慶有由 最恨人間相顧盡 更憐天地此生浮 沈痾阻送靈輻去 遠寄哀詞涕未收”

다. 그의 제자들은 학봉 김성일(1538 ~1593), 서애 류성룡(1542~1607), 여헌 장현광(1554~1637)의 문하와 함께 영남 남인학파의 사소분파(四小分派)를 이루었다고 일컬어진다. 조형도는 스승 정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만시를 지었는데, 그 안에서 스승을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오현(五賢)이 가신 뒤에 우리 선생 계셨는데	五賢之後我先生
관직운이 없었으니 세태가 한스럽네.	位命無存歎世情
...(중략)...	...(중략)...
무엇보다 유림들이 한없이 슬퍼하니	最是儒林無限痛
이로부터 우리 동방 귀와 눈이 어둡겠다.	東方從此入聾盲 <sup>29)</sup>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심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조형도는 이후 스승의 궤연(几筵)에 곡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감회를 읊기도 했고,<sup>30)</sup> 나제(羅堤)에서 연꽃을 감상하며 옛날 함께 했던 스승을 추억하고 시를 짓기도 했다.<sup>31)</sup>

학문 연원의 관점에서 조형도는 장인 죽유(竹圃) 오운(吳漚, 1540~1617)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인을 위해 지은 만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옛날에 받던 교훈 다시 받을 길 없으니	無復餘生承舊教
넷물에 뿌려지는 슬픈 눈물 건디기 어려워라	不堪哀淚灑前溪 <sup>32)</sup>

스승과 제자로 만나지는 않았으나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학문을 강론하며 가르침을 받은 것은 당연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운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19세에 김해 산해정(山海亭)으로 남명(南冥) 조식(曹植)을 찾아 제자가

---

29) 趙亨道, 『東溪集』 권3, 「寒岡鄭先生輓」  
 30) 趙亨道, 『東溪集』 권3, 「哭寒岡鄭先生几筵 歸路感吟」  
 31) 趙亨道, 『東溪集』 권3, 「羅堤賞蓮 懷寒岡鄭先生」  
 32) 趙亨道, 『東溪集』 권2, 「竹圃吳先生輓」

되었고, 25세 때 도산서당(陶山書堂)으로 이황을 찾아 제자가 되어 인재로 인정받아 두 사람 모두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관직 생활 동안 함안과 그 옆 의령에서 살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영주에 거주하면서 백암(柏巖) 김득(金玜)과 함께 이황을 향사한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일을 주도하였고, 따로 산천서당(山泉書堂)을 지어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조형도가 장인을 위해서 쓴 제문에서 “산해당에 수업하고, 퇴도문하 수학하여, 추향이正大하고, 학식이 바르고 분명했네.”<sup>33)</sup>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도 오운의 학문 연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형도는 청송 안덕리에서 태어났으나 10세 때 함안 검암리의 백부에게 입양되었고, 이후 친부모가 계신 청송과 양부모가 계신 함안을 오가면서 지냈다. 청송에서는 민추에게서 배우고 함안에서는 정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장인 오운도 영주에 이거하기 전까지는 함안과 그 옆 의령에 거주지가 있었으므로, 이래저래 조형도는 청송과 함안을 비교적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함안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부친 시도 있으니, 여하튼 그의 인맥 네트워크는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형도의 문집에 실려 있는 인명과 관계된 시 가운데 정보가 명확한 인물들 중심으로 아래의 표에 정리해 보았다.

성명	호	생몰연도	거주지	작품수	비고
곽재겸(郭再謙)	괴헌(槐軒)	1547~1615	대구	1	
곽재명(郭再鳴)		미상	고령	1	곽재겸 동생/곽재우와 사촌
곽재우(郭再祐)	망우당(忘憂堂)	1552~1617	의령	2	
권익(權翊)	풍애(風厓)	1572~1621	청송	1	외종간/외숙 권계창의 아들

33) 趙亨道, 『東溪集』 권2, 「祭竹圃吳先生文」

금원(琴援)		1582~?	안동	1	
김세렴(金世濂)	동명(東溟)	1593~1646		2	현풍현감 / 통신사
김윤안(金允安)	동리(東籬)	1562~1620	안동	7	류성룡의 문인
김치삼(金致三)	도연정(道淵亭)	미상		1	정구의 문인
도경유(都慶兪)		1596~1636	대구	1	정구, 서사원의 문인
민근효(閔根孝)	구벽재(扣壁齋)	1550~1630	청송	3	민추의 아들
민후건(閔後騫)	가산(可山)	1567~1631	청송	3	민추의 손자
박공구(朴玃衢)	기옹(畸翁)	1587~1658	성주	4	정구의 문인
서사건(徐思健)			대구	1	손처눌과 교류 (모당일기)
서사막(徐思邈)			대구	1	
서사진(徐思進)	이재(怡齋)	1568~1645	대구		
서사원(徐思遠)	낙재(樂齋)	1550~1615	대구	2	정구의 문인
서시립(徐時立)	전귀당(全歸堂)	?~1665	대구	1	정구, 서사원의 문인
서항(徐恒)			대구	3	사돈 / 아들 함장의 장인
성람(成瀾)	청죽(聽竹)	1556~1620	상주 (처가)	2	이이, 성혼의 문인
손기양(孫起陽)	오한(磬漢)	1559~1617	밀양	2	정유재란 시 밀양의장
손기업(孫起業)	은암(隱菴)	1565~1626	대구	1	장현광의 문인
손처눌(孫處訥)	모당(慕堂)	1553~1634	대구	5	정구의 문인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최은주)

손처약(孫處約)	오매정(五梅亭)	1556~1618	대구	7	정구의 문인/손 처눌의 동생
신즙(申楫)	하음(河陰)	1580~1693	상주	13	정경세의 문인
신타(申柁)			상주	5	신즙의 동생
신지제(申之梯)	오봉(梧峰)	1562~1624	의성	10	김언기의 문인 / 매제(妹弟)
신흥망(申弘望)	고송(孤松)	1600~1673	의성	2	신지제의 아들 / 조카
엄황(嚴愷)		1580~1653	전주	3	함안군수
오여벌(吳汝穰)	경암(敬菴)	1579~1635	영주	15	정구의 문인 / 처남(오운 아들)
오운(吳漣)	죽유(竹淵)	1540~1617	함안영주	5	장인 / 퇴계·남명 사사
윤조원(尹調元)		1572~1637		2	경상감사
이간(李幹)	괴암(乖庵)	1576~1637	청송	4	
이명호(李明志)	매죽헌(梅竹軒)	1565~1624	함안	2	정구의 문인
이민성(李民成)	경정(敬亭)	1570~1629	의성	1	김성일, 장현광의 문인
이민환(李民奩)	자암(紫巖)	1573~1649	의성	4	김성일의 문인
이준(李峻)	창석(蒼石)	1560~1635	상주	5	류성룡의 문인
이준성(李俊成)	덕계(德溪)	1570~1633	청송	6	장현광의 문인
전삼익(全三益)			영천	4	의병활동 / 봉화현감
전식(全湜)	사서(沙西)	1563~1642	상주	2	류성룡, 장현광의 문인
정구(鄭逯)	한강(寒岡)	1543~1620	성주	3	스승 / 퇴계·남명 사사

정문익(鄭文翼)	송죽당(松竹堂)	1571~1630		4	경주부윤
조찬한(趙縝韓)	현주(玄洲)	1572~1631		2	
채선길(蔡先吉)	금탄(琴灘)	1569~1646	대구	4	채응린의 아들
최현(崔峴)	인재(訥齋)	1563~1640	선산	1	김성일의 문인

교류 인물들의 출신 지역 분포를 보면 대구가 12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상주와 청송이 5명, 의성 4명, 성주 2명, 안동 2명, 영주 1명, 밀양 1명, 선산 1명, 함안 1명 등의 순서이다. 경남 함안에서부터 경북 북부까지 골고루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인근 고을인 예안의 사족 계암(溪巖) 김령(金垪, 1577~1641)의 인맥 네트워크가 중앙과 안동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송에서부터 그 아래로 지역 간 거리가 꽤 넓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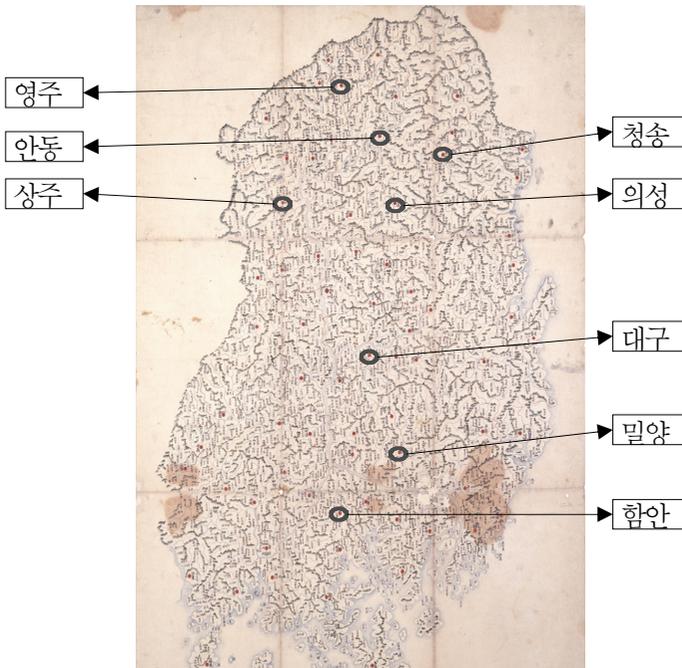
대구의 경우 서사원과 손처눌 형제를 중심으로 그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작품 수도 손처눌이 5수, 손처약이 7수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이들이 정구의 문인이라는 점과 정구가 대구 및 성주문화권에 끼친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조형도 역시 정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들과의 활발한 교류도 그 배경 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 셋째 아들 함장이 현감을 지낸 대구의 서향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 대구 유림과 사돈을 맺은 것은 교류의 배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활발한 교류의 한 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상주와 청송이 많은 것은 청송 지역 내에서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선동 및 방대에서 함께 모여 경치를 즐기고 시를 화답했던 멤버들이 모두 상주와 청송의 인물들이었다. 청송과 같은 경우 위의 표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아우 및 중형제들과도 문학교류를 활발히 하였으므로 지역 내 인맥은 이

들을 포함하면 그 기반이 청송은 좀 더 확장된다고 하겠다.

의성은 신지제 부자와 이민성 형제와 주로 교류했다. 신지제는 조형도의 생부인 조지(趙址, 1541~1599)의 딸과 결혼했으니, 조형도에게는 매제(妹弟)가 되고 그 아들인 신흥망은 조카가 된다.

아래의 지도를 보면 함안과 청송 사이에 대구가 가운데 쫘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함안과 대구 사이에 밀양이, 대구와 청송 사이에 의성이, 그 옆에 상주가 있다. 조형도의 인맥 네트워크의 범위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 지역들을 크게 아우르고 있다. 이것은 그가 두 지역을 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처남이었던 오여벌을 제외하면 안동 위의 인사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예안에 살았던 김령과 김택룡이 안동, 영주, 봉화 지역 인물들과 집중 교류했던 것과 대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조선팔도지도 중 경상도 부분]

#### IV. 맺음말

무인의 삶을 택했지만 문장의 재능이 뛰어났던 조형도는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 문학으로 교류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학적 정감을 나누며 관계를 공고히 했던 그였기에, 이를 통해 그의 인맥 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일기 자료처럼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얼마나 만나는지, 갈등과 타협 속에서 친소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정립되는지 등등 인맥 관계의 입체적 양상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형도의 삶 속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위치에 포진하고 있는지 전반적 실상은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이력이 어떤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그 범위와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미시적 실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1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趙亨道, 『東溪集』

申楫, 『河陰集』

김종석, 「경상좌도에 있어서 퇴계학의 역사적 전개」, 『국학연구』 제7집, 한국국학진흥원, 2005, pp.143~177

## Literary exchange and personal network of Hyeong-do Joh (趙亨道)

Choi, Eun-ju

Korean ancient scholar, Hyeong-do Joh (趙亨道, 1567~1637) was a namin politically and a member of the pan-Toegye school academically. He was born in Cheongsong, Yeongnam. Famous scholars such as Ji-jae Myeong (明智齋), Chu Min (閔樞, 1526~1604); Gang Han (寒岡) and Gu Jeong (鄭述, 1543~1620) studied under him. Joh mainly exchanged with people succeeding the academic line of Scholar Toegye in Yeongnam region. Hyeong-do Joh left a lot of poems in Chinese and many of them were written while exchanging with such people. Amid the continued war in the country, Joh decided to serve in the military still, he never stopped his communication and exchanges with the regional literature wri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one's personal network geography based on literature exchanges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poems written amid such exchanges and hi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s.

In Hyeong-do Joh's collection of poem works, approximately 230 poems showed his specific personal relationships. He wrote poems every time he met other people and every time he missed or came to think of them. His poems interwound with people sufficiently served

as a key channel to get closer to a more microscope of his personal network geography. Regarding the places of birth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people in relationship with Joh, Daegu has the highest number of 12 persons; followed by Sangju and Cheongsong with 5 persons; Euseong, 4; Seongju, Andong, Yeongju, Milyang, Seonsan and Hamahn, 2~3 persons, respectively, showing broadly even distribution from Hamahn, Gyeongnam, to the north of Gyeongbuk. Hyeong-do Joh's personal relationship network was found to focus on Daegu and encompass the broader surrounding areas including Hamahn and Cheongsong. This is because he used to come and go between the two places in his life. Excluding his brother-in-law, Yeo-bul Ouh, he hardly exchanged with people living above Andong.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cases of Ryeong Kim and Taek-ryong Kim who lived in Yeahn in the similar period and actively exchanged with people in Andong, Yeongju and Bonghwa. This fact informs us of the characteristics of Hyeong-do Joh's personal network topography, who was born in Cheongsong and served in the military during his life. And this finding also allows a more microscopic approach to the trend, regional exchanges and personal network building of Toegye-school literary persons from later 16C to early 17C.

**keyword** : Hyeong-do Joh(趙亨道), Cheongsong(靑松), Hamahn(咸安), literary exchanges, personal network map, Toegye school

